

ICT 표준 자문·구현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김영우, 전철기, 장종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jpjang@tta.or.kr, ironage73@tta.or.kr, ywkim@tta.or.kr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ICT standard consulting and implementation service

Kim young woo, Jeon cheol ki, Jang jong pyo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TTA)

요 약

본 논문은 2000년부터 진행되고있는 중소·중견기업의 ICT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한 ICT 표준자문서비스와 개발된 표준을 기반으로 제품 구현-사업화를 하는 ICT 표준구현서비스 현황과 최근 서비스 수혜 기업들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였고, 서비스가 결합되어 '표준 기획-표준 개발-표준 구현-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표준 전주기 지원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ICT 표준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ICT 표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활용을 확산하고자 한다.

I. 서 론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고, G7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기술 표준'이 의제로 떠오르는 등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표준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도구로서 미국, 중국 등 기술 강대국은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해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글로벌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SMEs)의 표준역량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표준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이를 위해 TTA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ICT 표준자문·구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중소·중견기업의 표준 전주기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본론

ICT 표준 자문서비스는 2001년부터 시작되어 초기(2001년~2007년)에는 대행업체를 통해 위탁운영되었고, 이후 TTA에서 직접 시행하였다. ICT 표준 자문서비스는 표준화에 참여하고 싶지만 표준화 참여 방법을 모르고, 표준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들의 표준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TTA가 보유하고 있는 ICT 표준 자문 전문가와 기업 매칭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표준 애로사항 해소, 국내·외 표준 개발, 표준기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매년 약 20~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진행되며, 약 10여 건의 ICT 표준 성과(표준 과제제택, 표준개발, 기술개발 등)를 내고 있으며, 연 평균 90회 정도의 자문을 시행하였다.

특히, 작년에는 국제표준 제정 2건, 채택 1건, 국내표준 제정 3건, 과제제택 1건, 표준기반 제품·서비스 개발 2건 등 총 9건의 표준 자문 성과를 도출하였다.

ICT 표준 구현-사업화 서비스는 표준에 반영된 중소기업이 보유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표준기술 가치평가 및 구현·검증 대상을 선정 및 지원함으로써 표준 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 연계활동을 촉진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표준화', '눈에 보이는 표준화', '시장에서 성공하는 표준화'를 강화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표준화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표준기술기반의 사업화 연계활동은 기업의 신시장 창출과 선점, 진입 및 확장성이 높아 중소기업이 표준화활동을 주도적으로 참여를 지원하며,

2030년 구현·검증 7개 기술, 가치평가 3개기술, 2021년 구현·검증 4개기술, 시험인증 1개기술 가치평가 3개 기술 등 총 18개 기술에 대해 지원하였다.

표준 자문·구현서비스는 작년까지 ITP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에서 각각의 과제로 진행되어 상호 연계가 애로사항이 다소 존재하였다. 하지만 '22년도부터 두 과제가 'ICT 표준 확산 및 구현 연구'로 통합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문·구현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세부 시행방안으로 '표준 기획 - 표준 개발 - 표준 구현 - 검증·인증 - 상용화(가치평가)' 등 표준 전주기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표준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자문서비스 진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IBK-창공 등 벤처기업 지원 서비스와의 업무 협력을 진행하여, 스타트업 기업의 표준유도를 하고자 하였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ICT 표준 인식 제고 및 활용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ICT 표준 자문, 구현서비스를 결합하여 표준 자문-구현에 이르는 표준 전주기 지원시스템을 논하였다. 또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자문·구현서비스 유도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 서비스와의 업무협력을 진행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ICT 표준은 분야 자체도 특수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인식 제고에 애로사항이 많다. 추후 더 많은 신규 기업의 자문서비스 유입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ACKNOWLEDGMENT

본 논문은 2022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22-0-0005, ICT 표준 확산 및 구현 연구)

참 고 문 헌

-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ICT표준기술자문 우수사례 모음집, 2021
- [2] 김동원 외, ICT 표준구현 사업화 지원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2022